SK 텔레콤, 2026 년 3 분기 실적 발표

통신 · AI 두 축으로 성장세 지속

- 연결 매출 4 조 4,973 억 원, 영업이익 5,523 억 원, 순이익 4,118 억 원

- SK 하이퍼와 SK 호라이즌 출범으로 AI DC 사업 추진 체계 구축하며 탄력

- 고객 친화적 상품·서비스로 통신 사업도 견조한 성장… 주당 830 원 배당 지급

[2026. 11. 4.]

SK 텔레콤(대표이사 CEO 정재헌, news.sktelecom.com)이 연결 기준 2026 년 3 분기 매출 4 조 4,973 억 원, 영업이익 5,523 억 원, 당기순이익 4,118 억 원을 기록했다고 4 일 밝혔다.

매출은 유무선 통신사업 성장 등을 기반으로 전 분기('26.2Q) 대비 3.2%, 전년 동기 대비로는 13.1% 증가했다. 영업이익은 세 개 분기 연속 5 천억 원 대를 기록하며 예년 실적을 회복하고 있다.

별도 기준 매출은 3 조 1,563 억 원, 영업이익 4,135 억 원, 당기순이익 2,989 억 원으로 집계됐다. 3 분기 배당금은 올해 1·2 분기에 이어 주당 830 원이다.

통신사업은 고객 친화적 상품·서비스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.

무선은 고객생애가치(LTV) 중심의 마케팅 전환으로 점진적 매출 회복을 보였다. 특히 올해 국가고객만족도(NCSI)와 한국서비스품질지수(KS-SQI), 한국산업고객만족도(KCSI) 조사까지 국내 3 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모두 1 위에 오르며 신뢰 회복을 입증해 나가고 있다.

유선 통신 매출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7.4% 성장을 기록했다.

■ AI 인프라 사업 실행 체계 구축... AI 서비스 사업 역량 결집도 성과

AI 데이터센터(DC) 사업은 SK 하이퍼(7 월), SK 호라이즌(8 월) 출범을 통해 본격적인 추진 체계를 갖추게 됐다.

SKT 가 AI DC 사업 전반의 전략과 위험 관리 및 글로벌 협력을 담당하고 SK 하이퍼가 사업개발, SK 호라이즌이 인프라 운영·확장을 각각 책임지며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.

SK 호라이즌은 울산과 서울 지역에 약 180 ㎿ 규모 신규 데이터센터를 구축 중이며, 해저케이블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
SK 하이퍼는 울산을 중심으로 잠재 고객군과 조건들을 협의 중으로, 확정 시 확보된 부지를 기반으로 신속한 인프라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.

AI 서비스 사업도 순항하고 있다. SKT 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에이닷, 업무용 AI 서비스에 적용해 활용 범위를 넓히는 한편 '모두의 AI' 참여로 회사의 통신·AI 역량을 결합, 국내 최대 AI 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.

박종석 SKT CFO 는 "통신·AI 두 축을 바탕으로 회복과 성장의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"며 "앞으로도 통신과 AI 사업을 하나의 성장 전략으로 연결해 시너지를 증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고 밝혔다.

<첨부1> 연결 손익계산서 요약

구분	26.3Q	25.3Q	YoY	26.2Q	QoQ
매출	44,973	39,781	13.1%	43,591	3.2%
영업이익	5,523	484	1,040.3%	5,660	△2.4%
순이익	4,118	△1,667	흑자 전환	4,660	△11.6%

(단위: 억 원)

<첨부2> 별도 손익계산서 요약

구분	26.3Q	25.3Q	YoY	26.2Q	QoQ
매출	31,563	26,647	18.4%	31,170	1.3%
영업이익	4,135	△522	흑자 전환	4,277	△3.3%
순이익	2,989	△2,066	흑자 전환	3,106	△3.8%

(단위: 억 원)